

보도시점 2025. 9. 10.(수) 토론회 시작 후 (14시 예정) 배포 2025. 9. 10.(수) 11:00

※ 참석자 발언내용은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보도시 실제 발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 ✓ 금융위 등 부처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개최
- ✓ 100조원으로 계획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75조원) (5년간)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AI),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관업체의 메가프로젝트, 지역, 스케일업 등 적극 투자 → 성장엔진 확보
- ✓ ‘국민성장펀드’를 대표과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금융대전환’ 적극 추진
- ✓ “정부가 강력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토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필요”(신동식 회장) 등 토론 진행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개요】

- (일시/장소) 2025.9.10.(수), 14시 / 마포 프론트원 1층 로비
- (참석자) (정부 등)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지방시대위원회 등

(명사) 신동식(한국해사기술 회장)

(산업계) SK,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퓨리오사AI, LG유플러스, 네이버, 두산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 대표자

(벤처·창업·금융업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태훈 بانک샐러드 대표,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 대학교 창업동아리 등 미래인재, 현장 엔지니어 등

(국회) 강준현, 민병덕, 허영 의원 등

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부부처, 산업계(첨단전략산업기업, 협력업체 및 인프라 기업 등 밸류체인 전반), 벤처·창업기업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벤처 캐피탈 및 금융회사 등 금융권, 대학교 창업동아리(순천향대, 서울대) 및 미래 꿈나무,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 등의 명사들까지 모두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의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

(배경)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분야를 넘어서 우리 미래세대의 변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고 있다. 각 국은 첨단산업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투입 및 고율관세 부과 등 국가단위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중화학·수출중심의 경제전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경제의 중요 분기점마다 전략적 결단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격화가 지속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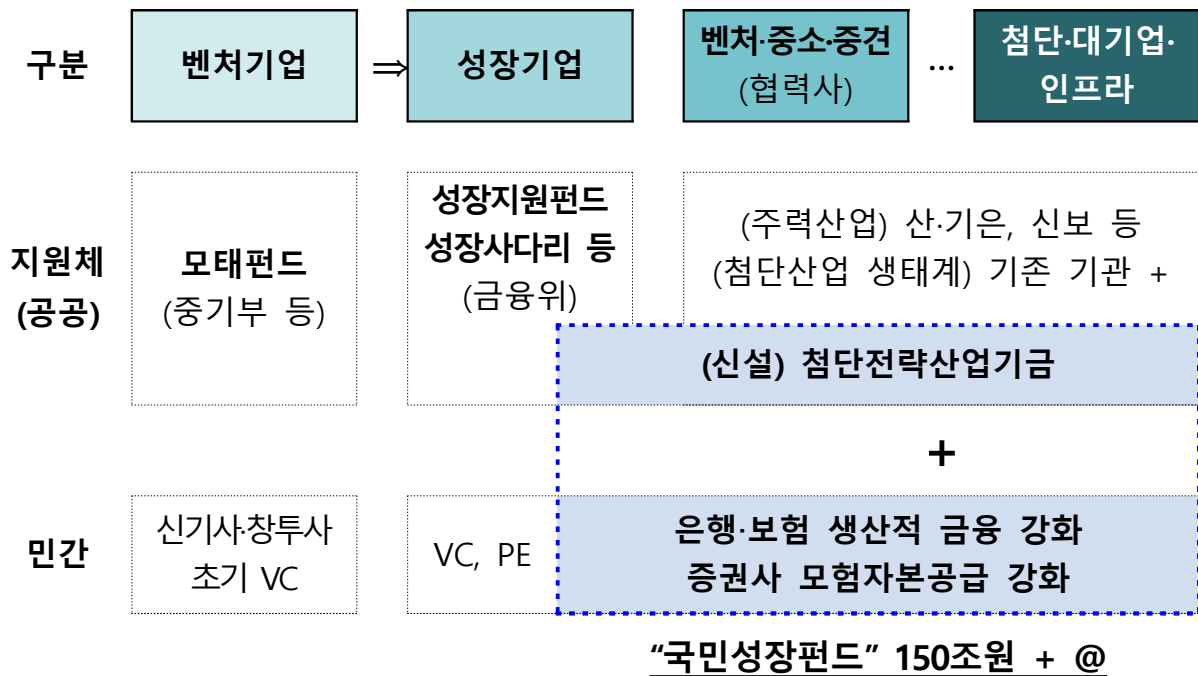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 집중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상)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150조원 x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 한국은행) = 약 125조원

☞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기대

【기업성장단계 內 국민성장펀드의 위상】



(펀드개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첨단전략 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5년간 150조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펀드조성)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26년 정부예산안 1조원 반영).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운용방안 개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26년 1조원 예산반영)

(지원방식) 국민성장펀드는 ①직접지분투자, ②간접지분투자, ③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④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①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②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

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③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④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방식별 개요도 참고)

(지원분야)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예)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펀드)의 총액을 50조원 이상으로 구성)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한다. 산업정책과 금융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하여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꾸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계획)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및 창업벤처 활성화 토론회]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 및 각 기업 및 산업의 청사진과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신동식 회장(한국해사기술)은 오랜만에 조선을 중심으로 기회가 도래한 만큼 강력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토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과감한 지원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못지않게 미래 산업발전의 씨앗 역할을 할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창업동아리 학생들도 의대만능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환경마련에 정부와 선배 기업인들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목표한대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붙임 :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발표자료)>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사무관 김재민 (02-2100-2891)
			주무관 김진주 (02-2100-2866)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김종식 (02-2100-2851)
			사무관 김경찬 (02-2100-2854)
			사무관 송병민 (02-2100-2852)
<공동>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044-215-4531)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홍권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2-6244)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수연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권순범 (044-203-4231)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붙임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 **150조원**(공공기금 75조원 + 민간 75조원)의 자금을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 준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이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장]

(26년 1조원 예산반영)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정책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기금운용심의회(개별건 심의)

집중
지원

메가프로젝트 / 밸류체인 / 지역

투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식

지분
투자

인프라
투융자

간접
투자

국민
참여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

(대규모 자금 + 규제·재정·세제·지자체·인력 토탈솔루션)

* 예)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
글로벌 탭티어 바이오시밀러(신약 위탁생산) 종합제약사 육성

① 미래 20년 新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Target

-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0개 산업 90개 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시행령 - 예: 콘텐츠·핵심광물 등)

②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 포괄

-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

③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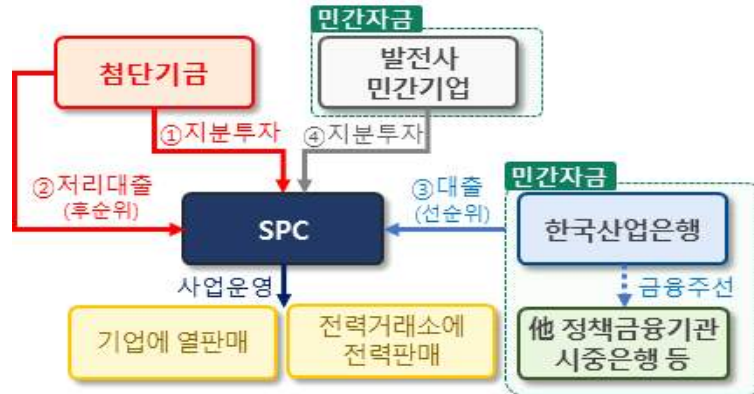
-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

* 예) 경남 방산 프로젝트, 호남 AI데이터센터, 경북 이차전지 프로젝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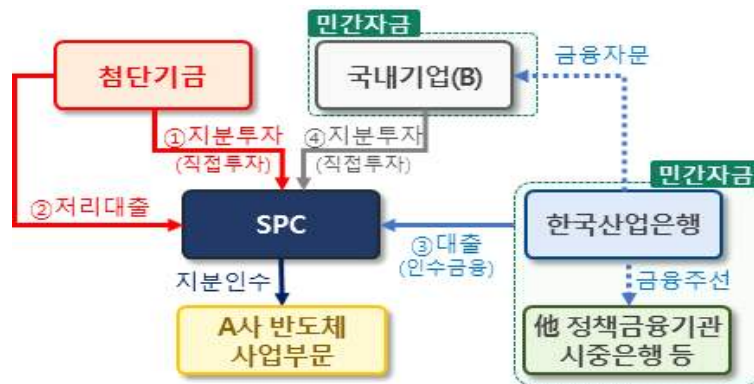
참고 1

자금지원 방식별 개요도

① 인프라 투·융자



② 직접 지분투자



③ 간접투자(정책펀드)

